

인물

▶1면에서 이어짐



국제캠퍼스의 역사와 함께하는 동안 변하는 학생들의 감성을 키아 상호도 바뀌었고 도중에 잠깐씩 문을 닫았던 세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빠짱 분식'은 여전히 학생들이 즐겨 찾는 가게 중 하나다.

"여기(마을)는 사실 학교(국제캠퍼스) 생기면서 같이 생겨난 동네야. 개인적으로 여기 영통 쪽이랑 전혀 연이 없었지. 그런데 우리 아들이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다녔었는데, 1980년쯤 수원캠퍼스(국제캠퍼스)가 생기면서 학과가 이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따라 내려와서 여기 자리를 잡은 거야."

말을 멈춘 이 할머니는 잠시 바깥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지금 가게 맞은편에서 라면집 이랑 슈퍼를 하면서 시작했어. 그때는 전부 학생운동 하느라 난리도 아니던 시절이지. 그 때는 배고픈 학생들이 '엄마, 엄마 밥 좀 줘요'하고 찾아오고 했더니."

이 할머니의 말처럼,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마을은 형제조차 불분명 했다. 당시에는 현재의 골목 자리에 들어선 '건물'이라곤 이 할머니의 가게와 학생들의 작은 방 몇 개가 전부였다. 변변한 건물조차 없던 그곳에서 당시 학생들은 할머니의 가게에 옹기종기 모여 난로에 몸을 녹이고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한다. 술 먹을 장소가 없던 학생들이 모여와 술과 라면을 먹으며 모임을 하던 곳, 그곳이 '아빠짱 분식'의 시작점이자 '마을'의 출발점이었던 셈이다.

1980년대 중순 이후부터 마을에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포장 도로를 중심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한 작은 술집들이 촘촘히 들어서기 시작했다. 술집들을 험한 학생들 역시 점차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비로소, 마들이 국제캠퍼스 대학가의 '중심'으로 변모하던 시기였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마을은 현재의 모습을 거의 갖춰가기 시작한다. 1994년, 현재의 중국집 '짜장마을'이 위치한 건물과 원래 실내 야구장이었던 지금의 철판 볶음

밥집 '동지' 자리를 중심으로 신식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마을은 5~6년 사이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마을의 상호들 또한 이때쯤 등장한 곳들이 많다.

마을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익숙한 상호 중 하나인 '엄마닭'도 이맘 때 자리를 잡은 가게들 중 하나다. '엄마닭'을 운영하는 오동희(58)씨는 '지난 세월동안 마을은 항상 학생들과 함께 했다'고 말한다.

"이제는 학생들이 전부 자식들 같지. 우리 가게 이름이 또 '엄마'잖아?"

오씨는 학생들의 선배도, 그 선배의 선배들도 여기서 젊음을 보냈다고 말하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재밌게 놀고, 좋은 데 취직도 하고 해서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뿐듯하다"고 흐뭇한 '엄마 미소'를 지었다. 지금도 학교를 떠나 직장인이 된 학생들이 자주 인사하러 찾아온다고 한다. 이제는 어느덧 어엿한 한 가장이 된 옛 단골들을 보면 훤히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고.

초창기의 모습과 형성기의 모습이 다르고, 중증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또 다른 마을은 이렇듯 시간대에 따라 각 세대에게 서로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 지금 현재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가의 수는 약 40여개다. 현재의 모습이 갖춰진 이후로 마을은 근래 들어 또 다시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 주로 술집 위주였던 상가의 자리들이 카페와 간단한 도시락집들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술집 '토네이도'를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진현숙(60)씨는 술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 변하기 많이 변했어요. 저희 딸이 10년째 일을 도와주려 오고 있는데, 하루는 오래간만에 도와주려 오더니만 '엄마, 여기 사람 많이 줄었네?'라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전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빨디딜 틈이 없었다면, 요즘은 개강 때임을 감안해도 사람이 확실히 줄었어요."

시대적인 분위기는 차치하고서라도 다양한 교통편의 발달, 특히 지난 2012년 12월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의 개통은 마을 상권의 확연한 변화의 흐름을 가져왔다. 영통역과 우리학교 정문을 있는 동선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국제캠퍼스 대학가의 '중심지' 역시 기존의 마을에서 정문 건너편 상권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유지되었던 '국제캠퍼스=마을'이라는 공식이, 불과 3~4년 새 확 바뀌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 비율이 적긴 하나, 술집 위주였던 절대다수의 상가들이 카페와 도시락집으로 재편되는 현재의 상황 역시 이런 흐름에 기인한다. 정문 건너편의 영통 상권에 다양하고 새로운 주점과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시작한 결과, 마을은 이제 지리적 인접성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업종들- 공강 시간에 간단히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카페나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도시락집 등-을 주요 경쟁력 삼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목요일만 되면 인산인해를 이뤘던 마을, 오랜 세대를 관통하며 국제캠퍼스의 중심으로 인식되어온 그 마을은 우리 후배들에게는 어떤 모습과 어떤 기억으로 자리하게 될까. 과거의 시간을 오로지 간직하고 있는 마들이 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또 한 번 변모하여 학생들의 삶 곁에 남게될지 사뭇 궁금하다.

★ 학군사관(ROTC) 56·57기 모집안내

2015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 56기(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 57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학년 학과는 2학년 재학생)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5년 3월 1일 ~ 3월 3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서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월 4일(토) / 발표 : 4월 24일(금)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 4월 27일(월) ~ 5월 22일(금) / 발표 : 6월 12일(금)
- 신원조회 : 6월 15일(월) ~ 8월 14일(금)
- 최종합격 : 8월 20일(목)
- 문의처 : 학군교 (043)830-6039